

# 대학의 배경적 환경 특성이 대학생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崔 志 雲\*

## 目 次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설계  |             |

## I. 서 론

### 1. 연구의 의의

K. Lewin(1935, 1936)이 제시한 인간행동의 공식(행동=f(개체·환경))은 인간의 바람직한 발달을 기도하는 교육적 접근에 매우 중요한 시사를 주었다. 이 공식에 대하여 행동에 교육성과(변화된 행동)를, 개체에 학생을, 환경에 학교환경을 각각 대입할 때 교육성과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학교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의 성과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명제에 따라 교육적 효과에 미치는 개인적

---

\* 人文大學 教職科 教授

특성은 무엇이며 또 환경적 특성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이 양자 사이의 상호 작용적 과정 즉 교육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교육성파에 미치는 영향 변인중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적 특성이 더 우세하다고 보는 연구(Eysenck, 1971 ; Herrnstein, 1973 ; Coleman, et al, 1966 ; Plowden Report, 1967)가 있는가 하면 학교의 조직이나 사회 심리학적 환경 풍토가 더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결론 내린 연구(McDill and Rigsby, 1973 ; Brookover et al., 1977)도 있다. 또 환경중에서도 구조적 환경보다 작용적 혹은 과정적 환경이 보다 더 교육성파에 강력하게 영향준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연구(Dave, 1963 ; Endler and Hunt, 1966 ; Bowers, 1973)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그 대상을 비록 대학생이나 대학환경으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연구 결과가 제시해 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학환경도 교육성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학환경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 그리고 구성원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1950년대말부터 서서히 착수되었다(Pace and Stern, 1958 ; Sanford, 1962).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70년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이운수, 1971, 1974) 대학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연구(황정규, 1981, 1982; 최지운, 1983)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학환경과 그것의 기능 혹은 영향에 관한 실증적(경험적)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개척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성과나 대학생의 행동성파에 대학환경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학환경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대학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대학정책의 입안이나 교육과정의 구성, 학생지도나 대학문화의 창조는 불가능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급격한 보급과 아울러 사회발전에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성이 더욱 고조되어가는 이 때에 이 연구는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줄 것이 틀림없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대학의 배경적 환경특성이 대학생의 情意的 특성 특히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밝혀 보려는데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배경적 환경을 구성하는 構因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관련 연구의 고찰

대학의 배경적 환경특성이 학생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情意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를 주거나 실제로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Dressel과 Mayhew(1954)는 대학생들에게 신념검사(inventory of beliefs)를 비롯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던 바 대학들 사이에 의의있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와같은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主變因은 각 대학들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는 환경적 특징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Jacob(1957)은 대학생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는 것은 교육과정이나 방법보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 코오넬 가치관연구(Cornell Values Study)도 대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 대학의 하위문화를 지적하고 있다.(Goldsen 등, 1960) 이외에 대학생들의 태도나 가치관의 형성에 대학의 문화나 풍토가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는 비교적 많다.(Barton, 1959 ; Eddy, 1959 ; 김태길, 1967 ; 황용연, 1975) 특히 Feldman과 Newcomb(1969)은 1920년대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에 걸쳐 미국대학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대학들이 특이하게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풍토와 사회심리적 환경이 학생의 情意的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심리적환경이 情意的 특성,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Feldman과 Newcomb(1969), Rich와 Jolicoeur(1978) 그리고 Astin(1978)의 연구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로 Feldman과 Newcomb(1968)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대학재학중 학생들의 권위주의, 독단주의(dogmatism) 그리고 종교적 정통성(orthodox form)은 소속대학에 관계없이 감소하는 반면 심미적 가치 지향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입학시에 이미 형성된 情意的 특성은 재학중 기본적인 변화는 없고 다만 그것을 보강하거나 조장하는 정도의 영향밖에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Rich와 Jolicoeur(1978)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 지향성을 촉진하는 환경풍토를 가진 대학이 있고, 주로 소규모의 대학과 사립대학들 그리고 기숙사가 비판적 자아개념을 높여주며 아노미와 독단주의를 감소시키고 정치적 및 사회적 의식을 높여주며 대학에 대한 만족과, 이론적 및 심미적 가치지향을 증가시키고 종교적 신앙을 저하시키는데 영향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셋째로 Astin(1978)은 4년간에 걸쳐 대학생들의 情意的 연구의 변화를 추적한 종단적 연구를 추진했다. 이 연구에서 대학에 따라 情意的 행동특성에 正的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찾아내고 있다.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학으로는 미국의 남부지역대학 흑인대학 그리고 2년제대학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외에 황정규(1982)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의 객관적인 특징(예: 종합대와 단대,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 국립대와 사립대)에 따라 학생들의 만족도, 귀속경향성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대학의 사회심리적 환경이 학생들의 情意的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영향의 정도는 대학이 갖는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특히 Dave(1963)나, Endler와 Hunt(1966) 등은 전체적 구조환경보다 과정환경(혹은 작용환경)이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대학의 전체적 환경(Total environment)보다 과정환경이, 대환경보다 소환경이, 집합적 지각환경(풍토, 분위기)보다 개인지각환경이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구성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2 대학 환경 연구를 위한 접근

대학환경연구를 위한 접근에는 대체로 종합적 지각접근, 기관 및 구성원의 특징적 접근, 그 구성원의 자기보고법 등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종합적 지각접근은 Murray(1938)가 構案한 욕구-압력도식(Need—press schema)에 근거하여 대학환경의 측정을 시도한 Stern(1958)의 활동지수척도(Activities Index AI), Pace와 Stern(1958)의 대학특징지수(College Characteristic Index), Pace(1963, 1969)의 대학환경척도(College and University Environment Scale CUES)가 있다. 이와같은 척도개발의 이론적 뒷받침은 Murray(1938)의 견해에서 출발했지만 Stern(1956)의 환경론에 두고 있다. 그는 객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환경( $\alpha$ 환경)과 이에 대하여 구성원 각자 나름대로 지각하고 있는 환경( $\gamma$ 환경), 그리고 각자 지각하고 있는( $\nu$ 환경)의 총합 혹은 공인된 환경( $\beta$ 환경)으로 나누고 이  $\beta$ 환경이 바로 대학의 사회심리적 환경이며 그 대학의 전체환경을 대표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로 기관 및 구성원의 특징적 접근은 “사회환경은 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의 특징에 의하여 결정지워진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Astin과 Holland, 1961). 이 접근에서는 지각적 접근이야말로 인상과 주관에 빠지기 쉬운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구성원의 특징에 의하여 환경을 보다 더 근거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의 장점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특징이나 既측정된 자료들(예 : 학과구성, 교육과정, 학생특성, 기타 물리적 조건 등)을 투입변수로 삼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접근도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다(Astin, 1962, 1964, Richards et al., 1966). 그러나 이 접근은 靜態的인 기술적 요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로 구성원들의 자기보고(Self-report)에 의한 접근은 일명 자극 및 활동접근(Stimulus or Activity Approach)이라고도 부른다. 이 접근에서는 “대학환경은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자극의 총합체”라고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 파악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활동을 보고케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Astin, 1965, Schumer와 Stanfield, 1966, Creager and Astin 1968). Astin (1970)은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있는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이나 사건들을 취급하므로써 환경과 구성원과의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접근은 자기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도와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 언급된 세가지 접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접근마다 장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학을 전체 환경과 개인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적 환경으로 용이하게 파악이 가능한 방법은 지각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 3. 대학 환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학의 사회심리적 환경이 학생의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주목하고 대학 환경을 연구했거나 실제로 대학환경이 학생발달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사회심리적 환경이 情意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국한했거나 대학생들의 情意的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는 비교적 많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과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것에 관련된 연구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연구는 Feldman과 Newcomb의 연구(1969)를 비롯하여 Rich와 Jolicoeur(1978), Astin(1978) 그리고 황정규(198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Feldman과 Newcomb(1969)은 1936년부터 1968년까지 대학의 영향에 관련한 연구보고서의 분석을 통하여 「학생에게 미치는 대학의 영향(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사실은 첫째 대학간의 환경적 특징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재학기간 중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독단주의(dogmatism), 종교의 정통성(orthodox form)은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심미적 가치지향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사실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은 대학환경이 학생들에게 보다 더 개방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때 이미 사회적 지위, 지능, 종교적 도덕성과 같은 배경특성에 의하여 특정한 지향성(혹은 경향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지향성에 맞추어 대학과 전공분야를 선택하고, 대학은 학생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지향성을 기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욱 보강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한다. 셋째로 Feldman과 Newcomb은 Jacob(195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汎대학적 영향(campus-wide impacts)은 소규모의 대학이나, 대규모대학의 전공분야, 씨어클 혹은 기숙사에서 주로 조성되는 하위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Rich와 Jolicoeur(1978)는 학생의 개인적 배경특성과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변인이 각각 단독적으로 그리고 이 양자의 상호작용으로 학생의 행동성취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정립했다. 이 모형은 배경특성, 환경, 학생성취의 세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California州 내에 있는 12개 대학에서 각 학교당 300명의 학생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자료를 얻어냈다.

이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①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하여 보다 더 인지적이고 독단성과 아미노가 낮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대학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화를 촉진한다. ③학생들의 행동성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유형의 대학과 보수지향을 촉진하는 환경풍토를 가진 대학이 있다. 소규모 대학, 사립대학, 기숙사는 자기 발전에 대한 비판적 자아관을 높이며 아노미와 독단주의를 감소시키며 정치적 사회적 의식을 증가시키고 학교에 대한 만족과 이론적 및 심미적 가치지향을 증대시키는 반면 종교적 신앙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Astin(1978)은 학생들의 태도, 신앙, 가치, 자아개념 등 情意的 특성에 대하여 4년간(1966~1970)의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했다. 이 연구에서 그는 태도, 가치, 자아개념은 많은 변화를 나타내는데 특히 대인적 자아개념에 正的 변화를 나타내며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태도와 정치관은 자유주의 경향으로, 전통적 종교신앙, 實業에 대한관심과 지위에 대한 욕망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변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정의적 행동특성에 正的인 영향을 주는 대학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학은 주로 남부지역大, 흑인대학, 그리고 2년제대학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황정규(1982)는 대학의 객관적 특징(예: 종합대 대 단과대, 서울소재대학 대 지방대학, 공·사립대, 共學 대 여자대학, 학교급별: A, B, C, 전공분야별)을 투입변인으로, 대학환경의 압력과 학생성격-환경상호작용을 과정변인으로, 대학생문제와 만족도, 그리고 歸屬경향성을 산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①학생-환경상호작용에 있어서 理想的 대학과 나, 대학생, 교수, 행정당국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불만족과 갈등이 전체적으로 심한 편이며, 그 정도에 있어서 단대, 지방대, 여대가 일반적으로 더 심한 편이다. ②대학생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회풍토와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반면, 性, 결혼과 가정환경문제는 덜 심각하게 느낀다. ③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중위수준이며, 종합대·국립대가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다. ④학업성취와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으며, 그 원인을 자신의 노력부족으로 돌리는 대체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의 특징에 따라 성공·실패의 원인을 각각 달리 다른 곳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의 환경변인이 情意的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의 유형 혹은 특성에 따라 正負兩面으로 영향주고 있음을 볼 때 그 영향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 4. 가정(假定)

이상의 대학환경연구의 결과와 접근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명제를 도출한다.

- 명제(I) 대학의 배경적 환경 특성은 학생들의 情意的 특성 특히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
- 명제(II) 대학환경이 학생들의 행동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 풍토 환경(전체적 환경)보다 작용환경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명제(Ⅲ) 대학의 배경적 환경 특성 構因에 따라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의 정도는 다를(有意한 차이) 것이다.

### Ⅲ. 연구설계

#### 1. 표본설계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측정단위 및 분석단위가 독립된 대학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모든 대학을 집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 중 2년제 전문대학과 교육대학, 지방분교 그리고 신학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년제 대학을 표본으로 삼았다.

첫째, 투입변인의 자료를 얻기 위한 표본설계에서 전국의 4년제대학들 가운데 최근에 신설된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을 추출하였다. 그 대학들은 다음 <표 1>과 같이 총 75개 대학인데 지역별, 설립별, 규모별, 남녀별로 대학들이 고루 분포되게 하였다.

<표 1> 지역·공·사립·종합·단대별 표본대학교

	공립			사립			계		
	종합	단대	계	종합	단대	계	종합	단대	계
서울	1	2	3	17	14	31	18	16	34
경기·인천	—	—	—	2	4	6	2	4	6
강원	1	1	2	—	2	2	1	3	4
충북	1	—	1	1	1	2	2	1	3
충남	1	1	2	—	4	4	1	5	6
전북	1	—	1	1	2	3	2	2	4
전남	1	1	2	1	—	1	2	1	3
경남·부산	3	1	4	1	4	5	4	5	9
제주	1	—	1	—	—	—	1	—	1
경북·대구	1	—	1	4	—	4	5	—	5
계	11	6	17	27	31	58	38	37	75

둘째로, 과정 및 산출변인에 관련되는 자료수집을 위한 표본설계는 분석의 측정 단위가 독립된 대학이라 할지라도 자료수집에서의 측정단위는 대학내의 학생들이라는 점과 학생들 중에서도 가능한 한 장기간의 대학생활을 통하여 환경지각과 인지적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고학년 학생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3~4학년 재학생을 표본대상으로 하였다.

셋째로 대학별 피험자 표본설계에 있어서는 각 대학의 재적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大(학생 10,000명 이상), 中(4,000~10,000명이하), 小(4,000명이하) 규모 대학으로 대별하고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표 2 참조) 이 피험자에게는 대학환경 척도와 정신건강 특성검사의 두가지 척도를 각각 대상을 반분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각 척도당 6,000명씩 배당된 셈이다.

표본계획에 대한 피험대학 및 피험자의 응답률은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피험 대학을 보면 64개 대학이 응답했으며, 피험자의 응답률을 보면 12,000명의 표본수에서 8,669명이 응답하므로써 72.2%의 반응률을 보였고, 이 가운데 8,248명이 유효 응답을 해주므로써 95.4%의 유효율을 나타내었다.

<표 2> 대학규모별 피험자 표본설계

規 模 別	大學數	大學當 標本範圍	標 本 總 數
大 (학생 10,000명 이상)	22	200~300	5,300 (環境尺度와 情意的 特性檢査로 각각 半分됨)
中 (학생 10,000명 이하 ~4,000명이상)	26	150~200	4,500 (環境尺度와 情意的 特性檢査로 각각 半分됨)
小 (학생 4,000명 이하)	18	100~150	2,200 (環境尺度와 情意的 特性檢査로 각각 半分됨)
計	66	100~300	12,000 (環境尺度: 6,000 情意的 檢査: 6,000)

〈표 3〉 표본설계에 대한 반응률

	標 本 數	應 答 數 (%)	有 効 數 (%)
被 驗 大 學	66	64(97%)	64(100%)
被 驗 者	12,000	8,669(72%)	8,248 (95%)

## 2. 道具의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건강 검사는 먼저 정신건강의 개념과 구인을 추출하고 그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작업으로 이어졌다.

### 1) 정신건강의 개념과 구인

정신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정서적 강인성(emotional robustness)에 두고 있다. Bower(1961)는 「정신건강이란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성격의 탄력성 원상회복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제약과 긴장을 견디어 내며 또 이것을 다룰 때 바른 사고와 건설적 지향성을 가지며 실패에서도 쉽게 이기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가는 자기지향적 정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Jahoda(1958, p136)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자기자신에 대한 태도,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 성격의 통합, 외부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정도(자율성), 현실 지각능력, 환경의 지배능력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후자의 세 가지 요인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황정규 1979)

특히 황정규(1979)는 정신건강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은 자아과정과 관련시켜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아과정이란 내·외적 환경에서 오는 투입정보를 선택·조정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며 이것에는 자아 판별능력, 자아확장성, 자아통합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정신건강은 자아개념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어디까지나 내면화의 수준에 있어서 깊고 통합적이며 불안의 해소, 긴장에 대한 인내력, 좌절에 대한 저항력, 정서적 강인성 등 모두 정신질환의 징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정신건강에 포함되는 하위개념 중 중요한 것을 들면 아노미(anomie), 우울증(depression), 경조증(hypomania), 열등감(inferiority), 정신적 일탈(psychopathic deviate), 사회적 내향성(social introversion), 신경쇠약(psychosthenia) 등을 들 수 있다.

## 2) 정신건강 도구의 개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문항은 MMPI의 566문항과 진위교(1965)가 MMPI 한국판 재표준화 검사를 제작하기 위하여 수정한 문항(566)들과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에서 제작한 다면적 성격검사(1982년판)의 문항(566)을, 그리고 황정규(1979)가 연구용으로 작성한 도구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아노미(anomie), 열등감(inferiority), 경조증(hypomania), 우울증(hypochondriasis), 精神病疾의 일탈(psychopathic deviation), 신경쇠약(psychosthenia) 및 사회적 내향성(social introvert) 등 7가지 영역에 걸쳐 총 70개문항(각 10개문항)의 시안을 작성했다.

이리하여 시안으로 만들어진 문항검사를 위하여 재검사신뢰도 계수와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해 본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낮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정신건강검사의 경조증, 우울증 및 사회적 내향성 척도 등 3개 척도 문항을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표 4> 정신건강검사의 문항과 신뢰도계수

검사	변인(尺度)	문항번호	(계)	신뢰도계수	
				$\alpha$ 계수	재검사
정신건강	1. 아노미	136 143 150 157 164 171 178 185 192 199	(10)	.641	.812
	2. 열등감	137 144 151 158 165 172 179 186 193 200	(10)	.729	.897
	3. 경조증 ☆	138 145 152 159 166 173 180 187 194 201	(10)	.406	.715
	4. 우울증 ☆	139 146 153 160 167 174 181 188 195 202	(10)	.571	.878
	5. 정신적일탈	140 147 154 (161) 168 175 182 189 196 203	(10)	.672	.833
	6. 신경쇠약	141 148 (155) 162 169 176 183 190 197 204	(10)	.718	.899
	7. 내향성 ☆	142 149 156 163 170 177 184 191 198 205	(10)	.584	.893

※ ( )내 문항번호는 삭제하므로써  $\alpha$ 계수를 높였음

☆ 낮은 계수치로 삭제된 척도

### 3. 검사의 실시와 자료처리

자료수집을 위하여 표본대학에 검사지가 배부되었고 3~4학년 학생중 다양한 전공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교직과목 강의시간을 택해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검사에 경험이 많은 교육학과와 심리학과 교수들의 협조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서울 지역의 검사는 연구자가 협력교수를 직접 만나서 실시요령을 일러주었고 지방대학은 문서로 실시요강을 전달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유효한 응답지만을 골라내었고, 이것을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통계처리는 대학의 배경적 특성별(설립별, 남녀별, 규모별, ...등)로 유의도검증(F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여기서는 배경적 특성을 次元과 特徵으로 나누었을 때 정신건강 특성요인이 나타내는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배경적 특성의 분류는 公·私·宗立, 규모(大·中·小), 學問性(上·中·下), 男女向性(男·女·中立), 學科均等性(上·中·下)別로 하였다.

### 1. 次元別로 따른 정신건강 변인의 차이

公·私·宗立, 규모, 학문성, 男女向性, 학과균등성 및 풍요성 등 6개 차원별로 본 정신건강 변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표 5>에 公·私·宗立대학별로 정신건강 특성 변인의 평등, 표준편차, 변량분석 有意度를 제시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총 4개 정신건강 변인중 아노미, 정신적 일탈 등 2개의 정신건강변인만이 유의한 차를 보일뿐 나머지 2개 변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정신건강의 아노미와 정신적 일탈변인에 모두 공립>사립>종립의 순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아노미와 정신적 일탈의 현상은 공립대가 사립과 종립보다 더 강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5〉 공·사·종립별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 인	N	정 신 건 강							
		아 노 미		열 등 감		정신적일탈		신 경 쇠 약	
		M	SD	M	SD	M	SD	M	SD
공 립	15	22.76	4.10	22.43	4.67	18.76	4.01	22.40	4.51
사 립	30	22.48	4.37	22.24	4.55	18.53	4.26	22.27	4.60
종 립	19	22.03	4.17	22.02	4.57	18.24	4.18	22.05	4.48
계	64	22.43	4.25	22.23	4.59	18.51	4.18	22.25	4.55
변량분석 유의도		F : 7.81 0.000		F : 2.04 무 의 미		F : 4.00 0.019		F : 1.66 무 의 미	

무의미 =  $p > .05$

둘째로 〈표 6〉은 규모별로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의 유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학의규모는 정신건강 변인에 아무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 규모의 크고 작음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차이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6〉 규모별로 본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 인	N	정 신 건 강							
		아 노 미		열 등 감		정신적일탈		신 경 쇠 약	
		M	SD	M	SD	M	SD	M	SD
대	37	22.46	4.10	22.19	4.52	18.45	4.01	22.23	4.41
중	8	22.46	4.45	22.37	4.80	18.59	4.35	22.34	4.74
소	19	22.36	4.40	22.20	4.56	18.55	4.36	22.22	4.66
계	64	22.43	4.26	22.23	4.59	18.51	4.19	22.25	4.55
변량분석 유의도		0.240 무 의 미		0.459 무 의 미		0.451 무 의 미		0.191 무 의 미	

무의미 =  $p > .05$

셋째로 <표 7>에 학문성 수준별로 본 정신건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아노미, 정신적 일탈변인 등 2개 변인이 학문성 수준차원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아노미는 중·하위집단에서, 정신적 일탈은 중위집단에서 각각 높은 점수 차를 보이고 있다. 아노미와 정신적 일탈에는 하위수준집단의 대학들이 더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학문성수준별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인 집단	N	정신건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M	SD	M	SD	M	SD	M	SD
상	11	21.82	4.19	21.98	4.51	18.15	4.16	22.00	4.45
중	10	22.69	4.33	22.34	4.65	18.70	4.22	22.38	4.53
하	43	22.69	4.23	22.33	4.60	18.64	4.17	22.33	4.62
계	64	22.43	4.24	22.23	4.59	18.51	4.18	22.25	4.55
변량분석 유의도		18.317 0.0000		2.488 무의미		6.658 0.0013		2.562 무의미	

무의미 =  $p > .05$

넷째로 <표 8>은 男·女向性別로 본 정신건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녀향성 차원은 열등감과 신경쇠약의 두 정신건강변인이 각각 유의한 차를 보여 준다. 이것은 곧 남녀향성 차원이 두 개의 특성에만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변인 중 열등감과 신경쇠약의 두 변인이 여향성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여향성 대학들이 남향성이나 중향성 대학들보다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을 시사한다.

〈표 8〉 남·여항성별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인 집단	N	정신건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M	SD	M	SD	M	SD	M	SD
남향	46	22.43	4.22	22.14	4.60	18.48	4.13	22.14	4.55
여향	11	22.53	4.43	22.70	4.47	18.62	4.28	22.66	4.53
중향	7	22.25	4.20	22.83	4.69	18.45	4.38	22.10	4.55
계	64	22.43	4.26	22.23	4.58	18.51	4.19	22.25	4.55
변량분석 유의도		0.649 무의미		6.597 0.0014		0.402 무의미		4.364 0.0129	

무의미 =  $p > .05$

다섯째로 〈표 9〉에 학과군등성별로 본 정신건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학과군등성 차원은 정신건강특성에 아무런 유의한 차이를 보여줄만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 학과군등성별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인 집단	N	정신건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M	SD	M	SD	M	SD	M	SD
상	50	22.38	4.24	22.12	4.58	18.46	4.16	22.14	4.54
중	11	22.43	4.23	22.49	4.60	18.52	4.27	22.53	4.58
하	3	22.97	4.58	22.42	4.57	18.97	4.10	22.36	4.52
계	64	22.43	4.26	22.23	4.59	18.51	4.18	22.24	4.55
변량분석 유의도		2.358 무의미		2.518 무의미		1.777 무의미		2.674 무의미	

무의미 =  $p > .05$

여섯째로 〈표 10〉에 풍요성별로 본 정신건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풍요성차원은 남·여향성차원과 함께 정신건강의 모든 변인(4개요인)에는 풍요성상위집단이 높은 점수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신건강에는 높은 풍요성집단이 긍정적으로 영향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위집단대학들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을 시사한다.

〈표10〉 풍요성별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인 집단	N	정신건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M	SD	M	SD	M	SD	M	SD
상	36	22.61	4.27	22.41	4.57	18.61	4.14	22.39	4.57
중	13	22.81	4.05	22.41	4.46	18.96	4.12	21.60	4.25
하	15	22.03	4.30	22.93	4.65	18.43	4.36	22.01	4.62
계	64	22.43	4.25	22.23	4.58	18.51	4.18	22.25	4.54
변량분석 유의도		10.487 0.0000		10.658 0.0000		4.757 0.0087		6.880 0.0011	

무의미 =  $p > .05$

이상에서 6가지 차원별로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의 결과를 살폈는데 그 중 변량분석 결과인 F比와 유의도만을 모아서 제시해 놓은 것이 〈표11〉이다.

이 〈표11〉에서 볼 수 있는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정신건강의 정의적 특성변인은 부분적으로 배경특성 차원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즉 아노미, 정신적 일탈의 두 변인이 각각 3개씩의 배경특성에 연관되어 유의한 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아노미, 정신적 일탈 등 두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신건강변인들은 배경적 특성차원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11〉 차원별 정신건강 변인의 변량분석(F비, 유의도)

배경 특성차원	사 례 수	변 인			
		정	신	건	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공·사·종립	공 15	7.81***	2.04-	4.00*	1.66-
	사 30				
	총 19				
규 모	대 37	0.24-	0.459-	0.451-	0.191-
	중 8				
	소 19				
학 문 성	상 14	18.317***	2.488-	6.658**	2.562-
	중 10				
	하 40				
남·여 향 성	남 46	0.649-	6.597***	0.402-	4.364*
	여 11				
	중 7				
학 과 균 등 성	상 50	2.358-	2.518-	1.777-	2.674-
	중 11				
	하 3				
풍 요 성	상 36	10.487***	10.658***	4.757***	6.880***
	중 13				
	하 15				

\*p &lt; .05, \*\*p &lt; .01, \*\*\*p &lt; .001

## 2 배경특성별 정신건강 요인의 차이 검증

공사립, 지역, 종합·단체, 공학·여대 등 네가지 배경특정類目에 따라 정신건강 특성변인이 나타내 주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12〉에 공·사립별 정신건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아노미, 정신적 일탈 등 정신건강은 사립보다 국립대학에서 유의한 점수차를 나타낸다. 이와같은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공·사·종립대학별로 본 결과와 동일하다. 이것으로 미루어 국립대학은 사립대보다 아노미와

정신적일탈을 더욱 억제하는데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표12〉 공사립대학별 정의적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인 집단	N	정신건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M	SD	M	SD	M	SD	M	SD
공립	15	22.71	4.09	22.48	4.70	18.75	3.99	22.41	4.53
사립	49	22.35	4.30	22.16	4.58	18.44	4.24	22.20	4.56
계	64	22.43	4.26	22.23	4.59	18.51	4.18	22.25	4.55
변량분석 유의도		4.89 0.027		3.48 무의미		3.92 0.048		1.51 무의미	

무의미 =  $p > .05$

둘째로 〈표13〉은 지역별(대·중·소도시별)로 본 정신건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에 의한 유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지역적 특성은 정신건강의 변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데 아노미와 정신적 일탈에 모두 소도시의 대학이 높은 유의한 점수를 보여 주고 있는 점으로 보아 역시 소도시 대학이 건전한 정신건강 형성에 유의하게 영향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13〉 지역별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인 집단	N	정신건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M	SD	M	SD	M	SD	M	SD
대도시	31	22.07	4.32	22.13	4.61	18.28	4.28	22.08	4.61
중도시	24	22.74	4.19	22.33	4.52	18.70	4.06	22.43	4.53
소도시	9	22.93	4.15	22.31	4.68	18.84	4.14	22.36	4.37
계	64	22.43	4.25	22.23	4.59	18.51	4.18	22.25	4.55
변량분석 유의도		15.10 0.000		0.94 무의미		6.23 0.002		2.90 무의미	

무의미 =  $p > .05$

셋째로 <표14>는 종합·단대별로 본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 분석의 유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종합·단대 특징은 정신건강에 유의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말해서 종합대나 단대 모두 유의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표14> 종합 단과대학별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 인	N	정 신 건 강							
		아 노 미		열 등 감		정신적일탈		신 경 쇠 약	
집 단		M	SD	M	SD	M	SD	M	SD
총 대	36	22.37	4.16	22.19	4.52	18.43	4.10	22.24	4.50
단 대	28	22.55	4.47	22.31	4.73	18.67	4.35	22.26	4.65
계	64	22.43	4.26	22.23	4.59	18.51	4.18	22.25	4.55
변량분석 유의도		1.67 무 의 미		0.65 무 의 미		3.10 무 의 미		0.03 무 의 미	

무의미 =  $p > .05$

마지막으로 <표15>에는 공학·여대별로 본 정신건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아노미와 정신적 일탈 등 두 개의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인이 공학·여대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점수차를 보여준다. 유의차를 보여주는 변인들을 보면 첫째로 공학대보다 여대가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정신건강에는 더 유의한 영향으로 여대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여대가 공학대보다 열등감과 신경쇠약에 높은 점수차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여대가 이 두가지 정신건강변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15〉 공학·여대별 정의적 특성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변인	N	정신건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M	SD	M	SD	M	SD	M	SD
공학대	53	22.39	4.26	22.11	4.60	18.50	4.19	22.16	4.55
여자대	11	22.72	4.29	22.01	4.43	18.54	4.14	22.83	4.49
계	64	22.43	4.26	22.23	4.58	18.51	4.19	22.25	4.55
변량분석 유의도		2.78 무의미		17.47 0.000		0.04 무의미		9.92 0.002	

무의미 =  $p > .05$

위에 제시한 네가지 배경적 특징별 정신건강 특성변인의 변량분석의 결과(F比, 유의도)만을 종합해서 제시한 것이 〈표16〉이다.

이 〈표16〉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종합대·단대의 특징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공·사립, 지역, 공학·여대 등)은 모두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공립대와 사립대 사이, 대도시:중도시:소도시 소재의 대학 사이, 남녀공학대와 여대 사이에 각각 차이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성립될 수 있다.(〈표16〉참조)

〈표16〉 특성별 정신건강 변인의 변량분석(F比, 유의도)

배경 특성차원	변인 레수	정신건강			
		아노미	열등감	정신적일탈	신경쇠약
공·사립	공 15	4.89*	3.48*	3.92*	1.51-
	사 49				
지역	대 31	15.10***	0.94-	6.23**	2.90*
	중 24				
	소 9				
종합·단대	중 36 단 28	1.67-	0.65-	3.10-	0.03-
공학·여대	공 53 여 11	2.78-	17.47***	0.04-	9.92**

\* $p < .05$ , \*\* $p < .01$ , \*\*\* $p < .001$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이 연구의 주목적은 대학의 배경적 특색에 따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즉 정신 건강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밝히려는데 있다. 이 차이를 통해서 대학의 환경변인(배경특성)이 정신건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는 전국의 75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측정된 31개의 투입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거쳐 6개의 潛在構因(차원)—설립별(公·私·宗立), 규모별(大·中·小), 學問的水準(上·中·下), 男女向性, 學科均等性(上·中·下), 豐饒性(上·中·下)을 추출할 수 있었고, 이어 객관적으로 들어내 주는 특징을 관계적 방법에 의하여 4개의 특징(公·私立, 지역, 綜合·單大, 共學·女大 등)을 더 추가시켰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64개 대학의 3~4학년 학생 8,248명으로부터 유효 자료를 수집해서 처리했다. 배경적 특성에 따라 가장 유의한 높은 차를 나타내는 정신건강 특성변인은 아노미와 정신적 일탈 변인들이다. 정신건강에서 높은 차를 보이는 대학들은 공립대, 학문성중위수준대, 여향성대(여대), 풍요성이 상위이고 소도시소재대학들이다. 이와같은 유의한 차를 나타내는 부류의 특성을 가진 대학들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특성에 그 만큼 차이있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2 결론

위에 요약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결론으로 이끌어 가기로 한다.

첫째, 대학 환경의 선행결정요인인 잠재적 構因을 찾아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투입 변인들 중에서 계량화되고 입수가 가능한 31개 변인을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거쳐 6개의 차원(公·私·宗立, 규모, 학문성, 학과균형성, 풍요성)을 찾아냈다. 원래 요인분석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는 어떠한 변인을 투입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6개의 차원은 Astin(1962), Richards (1966)등이 300여 대학의 자료에서 얻어낸 결과와 비교할 때 거의 일치한다. 그 뿐 아니라 적어도 4년제 일반대학의 모집단으로부터 투입변인 자료를 추출했기 때문에 이 차원은 한국의 대학환경의 배경적 특성을 대표하는 構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둘째, 배경특성별 정신건강 구인의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풍요성이 높은 대학, 공립대, 여대(여향성대), 학문성 하위급대학들이 높은 유의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배경특성에 속하는 대학들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주는 도가 높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나 아직 실증적 결과는 없다.

셋째, 전체적으로 볼 때 배경적 특성변인이 정신건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이와같은 추정은 환경변인의 영향의 비항상성 원리와 Bloom (1964)의 이른바 重複假說(the overlap hypothesis)의 뒷받침으로 더 확실해 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이 연구에 쓰여진 측정도구와 표본추출에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대학환경척도와 정신건강 특성검사의 개발에 있어서 엄밀한 문항분석을 始點으로 하여 각 문항별 신뢰도계수의 검증과 단계적 Cronbach  $\alpha$  검증을 거쳤고, 이 기초 위에 다시 요인분석에 의하여 각 하위척도의 타당도를 높이는 절차를 거치므로서 도구개발의 엄밀성을 극대화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4년제 대학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집단 연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같은 접근은 과거의 표본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연구임에 틀림없다.

## 參 考 文 獻

- 李潤樹 外, 大學의 心理的 風土와 學生의 行動特性에 關한 研究(문교부 학술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71.
- 李潤樹, 大學의 環境과 機能遂行에 關한 研究, 建國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 崔志雲, 大學의 社會·心理的 環境變因과 大學生의 情意的 特性變因과의 關係에 關한 研究(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 崔志雲, “社會·心理的環境이 情意的 特性에 미치는 影響”, 論文集(人文科學篇) Vol.XIV. 崇田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4. pp.253~264.
- 黃禎奎, 大學環境의 社會·心理的 特性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82.
- Allport, G.W., Vernon, P.E., and Lindzey, G.A., *Study of Values*, Boston : Houghton Mifflin, 1951
- Astin, A.W., *The Inventory of College Activities(ICA) : Assessing the College Environment through Observable Events*, Chicago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65 (a).
- Astin, A.W., *The College Environment*, Washington, D.C.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68.
- Astin, A.W.,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 Jossey-Bass, 1977.
- Bloom B.S., *Student Dishonesty and its Control in College*.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OE. 1672, N. Y. : Bureau of Applied Social Research, Columbia Univ., 1964.
- Bookover, W.B., Beady, C., Flood, P., Schweitzer, E., Wisenbaker, J.,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East Lansing, Michigan : College of Urb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 1977.
- Coleman, J.S. et 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 Dave, R. H.,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Unpublished Ph.D.

-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1963.
- Dressel, P.L., and Mayhew, L.B., *General Education Explorations in Evaluation*, Washington, D.C.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54.
- Eysenck, H.J., *The I.Q. Argument*, Freeport, New York : Library Press, 1971.
- Feldman, K.A. & Newcomb, T.M.,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vol.1),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76.
- Goldsen, R.K. et al., *What College Student Think*, Princeton, N.J. : D. Van Nostrand, 1960.
- Herrnstein, R.E., *I.Q. in the Meritocracy*, Boston : Atlantic-Little, Brown, 1973.
- Hunt, D., "Person-Environment Interaction : A Challenge Found Wanting before it was Tired."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 209~230, 1975.
- Jacob, P.E., *Changing Values in College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mpact of College Teaching*, New York : Harper & Row, 1957.
- Lewin, K.,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 McGraw-Hill, 1935.
- Lewin, K.,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 Hill, 1936.
- McDill E.L., and Rigsby L., *The Academic Impact of Educational Climates : Structure and Process in Secondary Schools*,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Pace C.R. and Stern G. G.,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9, 269~277, 1958.
- Rich, H.E. & Jolicoeur, P.M., *Student Attitudes and Academic Environment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67.
- Sanford, N. (ed.), *The American College : A Psychological and Social Interpretation of the Higher Learning*, New York : John Wiley, 1962.
- Shavelson, R.J., Hubner, J.J. and Stanton, G.C.,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3), 1976,

pp.407~441.

Stern, G.G., Stein M.I., & Bloom. B.S., *Methods in Personality Assessment*, Glencoe, III ; Free Press, 1956.

Stern, G.G., *Preliminary Manual : Activities Index ; College Characteristics Index*, Syracuse : Syracuse Univ., Psychological Research Center, 1958.

## Abstract

###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Background on Students Mental Health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background on both students mental health and each subcategory of mental health.

The research target groups included both 64 (4-year) colleges and 8,248 junior and senior students who were randomly sampled. The measurement instrument of mental health for the study consisted of 60 items in 6 categories, which were controlled through the validity test and the Cranbach  $\alpha$  reliability test and finally shrunk to 40 items in 4 categories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It is certai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environmental) background influence on students mental health. However, the degree of influence are not serious, which seems to support the Bloom's theory of overlap hypothesis.

2. The subcategories of mental health which are somewhat more sensitiv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background than others are anomie

and psychopathic deviation.

3.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background which positively influence on mental health are mainly ascribed to colleges of affluence in financial resources or facilities, most public universities or colleges, women's colleges, and some colleges which are comparatively low in academic level.